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감사드리세(찬20/새66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송기평 장로 2부/백권기 집사 3부/변 진 집사 4부/김수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성탄절 팡파르(Joseph M. Martin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Hannah Aimi Yu **유해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호세아(Hos.) 8:1-9:5 .....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1:19-28
- 말씀 Message .....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L AFC(9) 너희는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4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 Solus Christus(2): 네가 누구냐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2,3부/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주를 위한 이곳에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천사 찬송하기를(찬/새126장)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내 생애 최초의 연극

Very First Play of My Lif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매년 크리스마스 계절이 오면, 아끼던 시집에 끼놓은 가을 낙엽을 찾듯이 인생에 잊지 못할 낭만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평생 교회에서 자라왔고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더욱 이 계절에 주시는 추억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마스 연극에 발탁되어 요셉의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기억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저의 생애에 유일한 연극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던지라, 안경에 숨을 달아 마치 고드름이 달린 것처럼 추위에 떨듯이 대사를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침 제 이름의 뜻이 '한국의 요셉'인지라(물론 제 이름의 요셉은 구약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earthly father) 요셉의 역할을 쉽게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꼭 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아이를 뱀 임신한 여자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자기의 씨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혼을 할 뿐 아니라 치욕적인 불명예를 입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은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마 1:19). 피해 의식 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생명과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스캔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에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연들이 많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위시해서 루돌프 사슴, 선물 담은 양말, 징글벨, 반짝거리는 백화점 장식 등....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조연이 있다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인물, 요셉이 아니었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의 이름, 예수... 그 이름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요셉은 잊혀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잊혀진 요셉과 같은 은혜의 손길이 없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 신선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경험할 시기를 기도합니다.

Like looking for precious autumn leaves that have been pressed in the pages of a poetry book, when Christmas season comes around each year, a sentimental image comes to my mind that I cannot forget. I'm sure many of you, who grew up in church and had been going to Church school all your life, will have fond memories from the season.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was selected to play the role of Joseph in a Christmas play. I still remember like it was yesterday. Now that I think about it, that was my only experience of being in a play. I wore glasses since I was young. I would put cotton on them as if icicles were hanging from them and memorize my lines as if I was shivering from cold. Now that I think about it, maybe I easily got the part of Joseph, Jesus's 'earthly father', because my name means 'Joseph of Korea' (although my name takes after Joseph of the Old Testament).

From God's perspective, to send His son Jesus Christ to earth through Mary, He had to find that one person. Not only would this person protect the life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ut he had to also protect the pregnant woman. It was during a time when the society forbade woman carrying another man's baby, other than her husband, to live. When Joseph realized that Mary was pregnant while they were engaged, according to the Jewish law, he could either stone her to death or divorce her with shameful dishonor and have her be socially ostracized. That is why selection of Joseph was probably very important to God. There is a passage in the Bible that describes Joseph's character. "And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Mat 1:19) Joseph did not respond from a victim mentality. He thought about the life and future of the woman and decided to not make a scandal out of it. Seeing Joseph's action, we can only say 'amen' to God's selection of Joseph.

There are many extra roles that the world made for Christmas season. Starting with Santa Claus, there are Rudolf the reindeer, socks for gifts, jingle bells, sparkling decorations of department stores, etc. However, there is a supporting role that we should not forget, and that is Joseph. If it wasn't for Joseph, who was used to fulfill the prophesy of the Bible, Christmas story may have been drastically different. Christmas that came through the history of humanity is God's purposeful intervention as Jesus, the incarnated God. Jesus means 'God saves'...according to that name, the baby was named as given in obedience by Joseph, who cannot be forgotten.

This Christmas season, I pray that you will take a moment to reflect on whether you have been touched by the hand of grace, like forgotten Joseph, and experience the freshness of Christmas stage, like for the first time in your life.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L AFC-9**  
LOVE ALWAYS FINDS CHRIST

**너희는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호 8:1-9:5)

**1.**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무슨 계획을 하고 있나요? 명절과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셀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본문은 지적합니다. 아래에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적용해 봅시다.

1) \_\_\_\_\_ (8:4, 8-9)

2) \_\_\_\_\_ (8:14)

**3.** 당연히 기뻐해야 할 명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9:1)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드리는 제사(전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8:13; 9:4). 참고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참고/ 시 69:30-31, 시 51:16-17)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7-8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갈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부터 ( )을 거두리라

**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모든 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시사 하는 바를 나누어봅시다.(참고/마 3:17, 마 17:5, 뱀후 1:17)

■ 적용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찬204/새288장), 주를 위한 이곳에

적용하기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2025년 마지막 엘리사 새벽 기도회는 베델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교회를 떠받쳐 온 기도사역팀과 함께하며, 제 영혼을 깊이 흐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분들을 바라보니, 그저 기도 시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일깨우시려 의도적으로 초대하신 자리라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안을 뜨겁게 적시며, 감사와 경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매일 손용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예레미야 말씀은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여 깨우셨습니다. 솔직히 첫날은 무거운 본문을 마주하며 '주님, 왜 이 새벽부터 제 마음을 이렇게 흐드십니까...'라는 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불렀다'라고 속

삭이듯, 마음속에 감춰 두었던 죄성과 상처들을 하나씩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과 왜곡된 감정을, 요한난을 통해 가장 아끼는 것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두려움과 통제의 욕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미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 놓은 채 하나님께 묻는 척했던 교만한 태도를 마주하게 하셨을 때, 제 눈에서는 참았던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붙잡고 있던 빼놓아진 사랑,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던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듯 드린 기도까지 모두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심판마저 늦추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더욱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내년 권사 임직을 앞두고 걱정 많고 연약한 저

를 하나님이 엘리사 새벽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오이코스 특송 지휘로 섬기게 하신 이유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고백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언제나 제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보입니다. 그 신실하심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날들 또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고백합니다.

박지은 집사



사역 후기

Beyond the Blue

# 소망 중에 주시는 위로와 사랑



남편의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배우자 죽음의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저였기에 남편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은 살 소망과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사별한지 얼마 안되어 Beyond the Blue(B+B) 모임에 참가한다는 것이 저에게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기도와 사랑으로 모임을 섬기시는 스텝분들의 정성어린 섬김과 만찬은 위로가 되었고, 특히 저와 같은 상실의 슬픔을 먼저 가진 분들의 나눔과 매주 예배 후 교체할 수 있는 장소는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프로그램에서 슬픔의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롭게 보내기 위한 전문가들의 간증과 조언은 극심한 슬픔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모임을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변화는 사별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저의 마음이 이제는 진정으로 함께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정한 위로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언급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자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중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약1:27) 아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이 아직도 있지만 예수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천국으로 간 남편이 다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남은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천국 재회와 부활 소망으로 남편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제는 슬픔의 여정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Beyond the Blue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섬기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정 권사

훈련 후기  
리딩지저스

# 엠마오로 향하시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낭독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따라 읽게 된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시리즈는 월요일마다 그 주에 읽을 말씀을 친절히 요약해 주어서 더욱 편하게 따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두서없이 읽던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도록 인도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성경 본문만 골라 읽는 습관을 방지하고 성경 읽는 패턴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설명해 주셨던 그 장면이 리딩지저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듯이 저 역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리딩지저스'를 통하여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를 권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까지 은밀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돌아보게 되어, 말씀 목상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기쁨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리딩지저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읽게 하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게 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만난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구원받

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거듭 읽을수록,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 움직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지저스 함께 읽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친히 말씀을 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며, 걸음도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경 권사



사역 후기  
셀

# 셀 사역의 여정



셀 사역은 셀목자님들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셀목자님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위로해 드리며, 셀모임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셀 사역팀의 소중한 역할이라 믿으며, 셀 사역 팀장님과 함께 2025년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주일 코트야드 셀모임(주코셀)을 준비하기 위해 1부 예배 전부터 나와 테이블과 의자를 하나하나 닦으며, 그 공간에서 펼쳐질 셀모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코트야드에서 셀모임을 준비하시는 셀목자님들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셀원들이 모임 장소에 들어올 때마다 환한 얼굴로 맞이하는 셀목자님들의 모습에

는 행복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희 마음에 도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셀 모임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70대, 80대가 막내인 셀부터 신혼부부 셀까지 있었지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는 나이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고, 셀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고민을 들어주고 힘써 기도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든 셀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각 셀 가운데 부어 주시는 은혜가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건강한 셀모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베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셀모임이 많이

세워져야 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건강한 셀목자님들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셀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자님들의 기도과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매주 셀목자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고, 셀 사역팀 역시 그분들이 셀모임을 인도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년 동안 정성껏 준비하며 섬겼습니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셀 사역팀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윤명중 집사



교회학교 후기  
중고등부 추수감사절

# 사랑의 만찬



올해는 BYM(영어)과 CIM(한국어) 중·고등부가 연합하여 추수감사절 뱅킷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는 학생들이



지만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연합으로 모두 함께하는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행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동의와 응원 속에 첫 시도를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60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할 거라 예상하고 준비했지만 2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의자에 앉지 못한 채서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각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터키와 햄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으며, 나머지 음식들은 부모님들께서 팻력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모님들께서 음식과 선물 도네이션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준비된 음식을 두 번, 세 번 접시에 담아가며 즐겁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학생들은 교회에

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모님들께서 음식과 선물 도네이션을 풍성하게 채워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은 준비된 음식을 두 번, 세 번 접시에 담아가며 즐겁고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학생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초대하여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음식 서빙 봉사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섬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뱅킷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목사님의 기도와 이성우 목사님의 찬양, 김해나 전도사님과 신디 전도사님이 준비하신 즐거운 게임으로 학생들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뱅킷을 기쁨과 감사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음식 준비, 선물 도네이션, 서빙과 봉사로 함께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권사

예살 간증  
찬양 인도자

## 말씀 속에 살아가는 축복

2025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축복 중 하나는 예살의 부흥인 것 같습니다. 예살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예살의 여정을 바라볼 때, 청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등, 그 열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 뒤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피땀 흘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강솔로몬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예살의 기둥인 사모님들, 헌신적인 부장장로님, 그리고 예살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청년들이 계십니다. 예살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며, 저도 예살의 리더 중 하나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크게 기대되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예살워십팀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워십팀의 대다수가 청년 중에서도 어린 축에 속하는데, 늘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 제가 배울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사역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잘 적응해 나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특히 삶의 동반자이자 한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에 더욱 느끼는 것은, 많이 분주해진 삶 속에서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아내의 모습,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비록 이 글 속에 결코 다 담을 수 없지만, 많은 희생과 헌신을 불평 없이 베풀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있기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베델교회의 마음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험시바부터 오이코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오이코프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동참해 주시는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셉 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아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미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훈란

사역광고

# 2026 신입 임직자 명단

임직예배 일시/장소: 12월 21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강사: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교회)

- 사역장로(5명): 김재훈(7016) 박성남(5122) 석승진(5554) 이종선(5581) 이해원(5979)
- 안수집사(24명): 강명성(10568) 김대웅(6512) 김영민(10661) 김영현(10403) 김중철(9657) 김지광(10647) 박철용(10067) 서덕령(9270) 석민석(10441) 윤승환(8968) 윤현돈(10418) 이기호(9901) 이노아(10543) 이배운(8544) 이상훈(10208) 이세웅(8684) 이요셉(10468) 이장한(10432) 장석우(10389) 전민혁(10669) 정저스틴(10553) 최지훈(5517) 한군희(10129) 홍성용(10667)
- 사역권사(23명): 강안젤라(6744) 구형숙(10365) 김기욱(4756) 김선희(4955) 김안젤라(10218) 김혜란(6807) 김혜준(5792) 박경숙(10360) 박수미(9300) 박지은(9871) 박현진(9156) 배은섭(8956) 송이영(8684) 안예진(8843) 오경희(9867) 윤경희(9009) 이은영(10172) 이은주(5852) 조은정(9653) 주경아(7011) 차계향(10221) 최란영(4449) 황장은(6130)
- 전임장로(1명): 고승렬(10384)
- 협동권사(13명): 강성자(10786) 강정선(3562) 고제니퍼(10384) 김인순(8481) 김진화(10929) 김춘수(2990) 김흥예(8212) 민금숙(10227) 박수진(6865) 신미정(10434) 우현수(9191) 이성숙(8164) 최은주(10514)
- 서리집사(182명)
  - 남자(80명): 강항준(6273) 계명균(11137) 길병주(11245) 김건호(11181) 김경수(11187) 김대웅(11282) 김도널드(11003) 김동철(11444) 김스티븐(7743) 김영진(11424) 김재성(11179) 김정일(11152) 김종훈(9173) 김주혁(10859) 김창수(10753) 김태윤(9312) 김현승(11171) 김혜수(11404) 민석기(10831) 박동연(11094) 박범진(11443) 박상환(11328) 박성준(10745) 박일홍(3106) 박재범(11217) 박진형(11186) 백세오(9715) 변성주(9646) 부태원(11246) 손요셉(11196) 신영록(11050) 심요한(8449) 안영후(11434) 안진우(11425) 오상덕(11426) 우기호(11348) 우남균(7052) 원준연(10168) 유병철(6050) 유암(11292) 유원노(6742) 유재희(9120) 유진구(8680) 유택중(11224) 윤기로(11227) 윤원득(9283) 윤정호(11233) 이근희(10589) 이교혁(11305) 이기원(11218) 이용기(11206) 이용환(8982) 이유진(8977) 이재광(10850) 이재우(11420) 이재원(10835) 이정우(11397) 이해국(10918) 임우영(10887) 장대령(11316) 전임배(10622) 정광희(8355) 정영훈(11117) 정용현(10930) 정재영(10686) 정희섭(11411) 조경호(11126) 조성준(9730) 조성훈(11149) 조인성(11057) 최빌리(11043) 최요성(11314) 최인섭(11182) 최홍성(11228) 탁원균(10148) 하준상(10895) 허민행(11298) 홍석준(11297) 홍정환(6550) MITCHELL WE(7116)
  - 여자(102명): 강미숙(11149) 강민지(11039) 강보영(9283) 강소연(10711) 강주희(11117) 구원경(11452) 김경희(11214) 김문정(10959) 김미래(11196) 김민(11123) 김민정(11219) 김성미(11244) 김영희(11152) 김윤정(11424) 김의순(8887) 김첼리(7743) 김현정(10323) 김혜원(10930) 나용화(10547) 남유선(11314) 마혜원(11297) 민신킨(10831) 박가영(11411) 박경희(11443) 박수란(10745) 박연옥(11328) 박영린(11217) 박예린(11179) 박은죽(10391) 박우희(9816) 박은정(10168) 박지윤(10798) 박지혜(11263) 박혜미(11305) 박효선(11285) 배세라(11189) 배은경(10709) 백도희(9715) 성정애(10393) 손지현(10889) 송민경(6550) 안수연(10561) 안안나(10135) 오새아(8449) 오정신(11426) 위우정(7116) 유미정(6050) 유정욱(11292) 윤경(11212) 윤혜신(11444) 이경선(9861) 이무리(11282) 이미라(11233) 이미숙(11206) 이민아(11003) 이병민(11173) 이샘(11246) 이선우(11171) 이수미(11024) 이수연(11349) 이순옥(8982) 이췌린(11344) 이에니(10835) 이영순(10850) 이에은(10937) 이은정(11397) 이정남(11396) 이지현(11270) 이채림(5979) 이현정(11224) 인은혜(9371) 임보람(10887) 임초설(11187) 장정민(11316) 장진양(10825) 정소은(10895) 정정인(8601) 정주은(10686) 정현제(11208) 조슬기(11057) 조은비(10589) 조지연(10753) 조한나(11126) 조혜경(3867) 지선화(11298) 진혜옥(1972) 채지영(11382) 최경실(11228) 최민정(11434) 최상순(10320) 최소윤(11404) 최영미(11137) 최제인(11043) 최지수(11182) 최지애(6273) 카나코 힐더브란트(11421) 하연하(10401) 한재연(9331) 황미례(9185) 황민희(11186) 황선화(10996) 황지성(793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	12/21: ①부-손석환	②부-오세영	③부-송용훈	④부-김에스터
	12/28: ①부-안경수	②부-안지호	③부-왕동원	④부-김지윤
	1/4: ①부-이강오	②부-정광묵	③부-이길수	④부-니승호

행사바 토요일 대표기도(12,1월) | 12/20: 박관규 12/27: 박기흥 1/3: 엘새 1/10: 엘새

강단꽃(12,1월) | 12/14: 김호경, 왕예진, 이수민 12/21: 윤주원, 이루이, 한보영 12/28: 류재영 1/4: 장석우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소화기 내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박규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신임 임직자 주행** 교인총회 최종 인준 받으신 2026년 신임 임직자(사역장로, 안수집사, 사역권사)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19일(금)-20일(토), 저녁 6시 체육관  
 사역 참관: 12월 21일(주일) 오전 11시,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앞에서 모입니다.  
 \*참석을 못 하실 경우는 보강수업을 받게 됩니다.

◆ **임직 예배**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2026년 신임임직자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강사: 12월 21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성탄감사주일 및 성탄감사예배** 12월 21일 주일예배는 성탄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또한 12월 25일(목)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가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를 오전 10시에 Bethel Grace Church와 연합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다음세대가 준비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소중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21일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 베델 사진관이 운영 됩니다.

◆ **2026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주신 특별한 비전 'Come & See 50'으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베델의 온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1월 2일(금)-10일(토) 주중 오전 5시, 토 오전 6시  
 강사: 김한요 목사, 오명찬 목사, 윤대혁 목사, 이진수 목사

◆ **베델한국학교 2026년 봄학기 등록 및 교사 모집**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한국학교가 2026년 봄학기 일반 등록을 시작합니다. 신입 교사 모집도 함께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학기 일정: 2026년 1월 24일-5월 16일(16주, 4월 4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학습 내용: 영성 훈련(QT), 한국어, 한국 문화, 역사 등  
 신청 대상: 만 5세 이상부터 K-12학년 (2025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등록 기간 및 등록금: 2025년 12월 6일(토)-20일(토), \$430  
 등록 사이트 : <https://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MY ONE PRAYER 온라인 신청** 2026년 꼭 응답받기 원하는 한 가지 기도제목을 받습니다. 엘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담당 목장 목회자가 기도할 것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로 기도 제목을 적어 넣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 **2026 교회학교 엘리야 새벽기도 등록** 참석 예정인 자녀들은 각 부서에서 보내드린 링크를 참고하셔서 오늘(14일)까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기간 매일 출석한 자녀들은 후드/크루벱을 선물로 받습니다. 문의는 각 부서 담당 목회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월 2일(금)-10일(토) 주중 오전 5시, 토 오전 6시



◆ **2026 봄학기 제30기 베델아기학교 등록** 베델 아기학교는 생후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간: 2026년 2월 11일-5월 6일 매주 수요일 1회 총 12주 과정  
 정원/등록비: 정규반-강종이반(15-48개월) \$300, 36명(선착순)  
 추가반-뽀뽀이반(30-48개월) \$200, 6명(선착순), 프리스쿨 준비반으로 수요 정규반 등록 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의: 최미정 전도사 (949)738-7225, 현승원 집사(701)212-5517



◆ **헌금 명세서** 2025년도 헌금 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3부 예배 시 유형석/유원정 집사의 딸 유해나(Hannah)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배홍수 목사/장주혜 사모의 가정에 아들 배노아(Noah)가 12월 9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오기찬 성도님(오정아 집사의 부친/김혜원 집사의 장인, 오현민 성도의 부친/임지연 성도의 시부)께서 12월 12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li> <li>■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li> <li>■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 <li>■ 아기학교: 수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li> <li>■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 <li>■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li> <li>■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 <li>■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li> <li>■ 편집장: 김경자 권사</li> <li>■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 <li>■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 <li>■ 번역: Grace Yi 전도사</li> </ul>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1.** It's Advent, the time of waiting for Christmas. What plans are you making? If you have any fun episodes related to this holiday, please share with your cell family.

**2.** The passage points to two things that represent what God is not please with. Let's summarize the points below and apply their meaning.

1) \_\_\_\_\_ (8:4, 8-9)

2) \_\_\_\_\_ (8:14)

**3.** On joyful feast day, God commands "Do not rejoice, O Israel; do not be jubilant like the other nations"(9:1). God reveals the reason that sacrifice offered at feast does not please God (8:13; 9:4). Read the reference verses. What kind of worship pleases God? (Ref: Ps 69:30-31, Ps 51:16-17)

**4.** In Galatians 6:7-8, what does Apostle Paul say about the importance of worship that pleases God?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one sows, that will he also reap. 8 For the one who sows to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 \_\_\_\_\_ ).

**5.** What must come first for worship and all other things to be pleasing to God? Let's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discuss its implications. (Ref: Ma 3:17, Ma 17:5, 2Pe 1:17)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